뇌 2%밖에 없다던 소년이 보여준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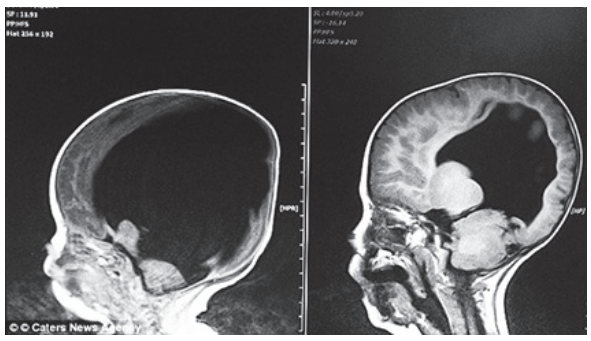
뇌가 없다던 소년이 숫자를 세고 서핑을 배우는 등 기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아 월(6, 사진)은 출생 당시 뇌가 없어 살지 못할 거라던 의사들의 진단을 뒤집고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노아는 이제 걷는 법과 스키 타는 법을 배우고 싶어한다.

영국 컴브리아주 출신인 롭 월과 셸리 월 부부는 임신 3개월 차에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노아는 척추이분증과 그에 따른 수두증 (뇌수종)을 앓고 있었으며 희귀 염색체 이상이 동반된 상태였다. 의사들은 노아의 뇌가 없거나 있어도 보통의 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월 부부는 다섯 차례에 걸쳐 의사들에게 중절 수술을 권유 받았으나 끝까지 노아를 포기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노아는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모여있던 12명의 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란듯이 스스로 세상 밖에 나왔다. 셸리는 "아기는 놀라울 만큼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우리는 거기서 노아의 강인함을 엿봤다." 고 전했다.

노아가 태어나자 월 부부는 아들을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두뇌센터로 옮겼다. 그곳에서 노아는 신경생물물리학을 기반으로 한 인지운동과 물리치료 등 뇌훈련을 받았다.



▲ 노아가 태어났을 당시인 2010년 뇌 사진 (왼쪽)과 3년 후 회복된 뇌 사진(오른쪽)

롭은 "그 치료는 일반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 고 밝혔다.

다행히 치료에 효과가 있었고 노아가 세 살이 되었을 때 노아의 뇌는 80% 가까이 회복돼 있었다. 롭은 "많은 의사들은 노아의 뇌가 발달하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노아는 이제 스스로 일어설 줄도 알고 숫자도 셀 줄 안다." 며 벅찬 모습을 보였다. 그는 "노아의 뇌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정신장애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지만 해맑은 아들의 모습에서 행복을 느낀다." 며 "노아가 아직은 휠체어에 묶여 있지만 언젠가 스스로 걷고 원하는 대로 스키도 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 덧붙였다.

자랑할 걸 해야지

중국 상하이의 한 여성이 음주운전 중 "제발 날 잡아가!" 라고 외치는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소원' 대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18일 저녁 중국 상하이 칭푸에 사는 이 여성은 술을 마신 후 직접 차를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위챗 모멘트에 올렸다.

그녀는 "음주 운전 중, 제발 잡아가 줘. 감옥에 가면 한 달에 5kg이 빠질 거야. 마르고 싶은데, 집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라고 말했다.

결국 당일 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결국 그녀를 찾아내고야 말았다. 그녀의 자택에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에도 그녀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녀는 경찰을 보며 "나 잡으러 온 거예요? 진짜? 진심?" 이라고 묻기도 했다.

음주 측정 결과 그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20mg/100ml(0.2%)로 처벌 대상이었다. 결국 그녀는 벌점 12점, 운전면허 정지 6개월, 벌금 1,500위안(약 250달러) 처벌을 받았다.

그녀는 친척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황주 한 사발을 마셨고, 집까지 2km도 채 되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술에서 깨어난 그녀는 "술김에 눈길을 끌고 싶어 동영상을 올렸다." 면서 "너무 후회된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원 성취한 것을 축하한다!" 며 그녀를 조롱했다.

뛰었다고 벌금형 받은 남성

버스를 놓칠까 봐 뛰어가던 청년이 '벌금폭탄' 을 맞았다.

지난달 27일 '서울신문' 에 따르면 콜롬비아 보야카에서 사는 청년 안드레스 아리아스는 시외버스로 출퇴근하기 위해 평소처럼 터미널로 나갔다. 시계를 보니 벌써 자칫하면 버스를 놓칠 수도 있는 시간. 아리아스는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 달리기 시작했다.

경찰이 그런 그를 불러 세운 건 약 4~6m를 달렸을 때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뛰는 건 질서를 허무는 행위" 라면서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했다. 아리아스는 황당한 얼굴로 "회사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달린 게 죄라고요?" 라며 항의했지만 경찰은 막무가내였다.

경찰이 넘긴 고지서를 보니 그에게 부과된 벌금은 83만3,000페소(약 280달러)로 그의 1개월 치 월급에 달하는 돈이었다.

이 일은 아리아스가 사연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아리아스는 "내가 잘못한 건 없다고 본다.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달린 것뿐인데 경찰이 벌금을 부과했다." 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벌금은 내 한 달치 월급 전액" 이라면서 "벌금을 내면 먹지도 못하고, 월세도 낼 수 없게 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뛴 게 잘못이라고 해도 겨우 4m 달린 것을 두고 월급을 벌금으로 내라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고 했다.

이어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출근길에 달리는 것도 경찰의 눈치를 봐야 하게 됐다." 면서 "공공장소에서 달려야 하는 일이 생기면 먼저 주변에 경찰이 있는지 살펴보라." 고 주의를 당부했다.

콜롬비아에선 최근 경찰의 비상식적 단속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앞서 콜롬비아 경찰은 무허가 노점에서 만두를 사먹었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벌금을 부과해 비난을 받았다. 인터넷엔 "무허가 노점을 단속해야지 손님을 처벌하는 게 말이 되냐?" 는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